

## “힘써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제민 씨 인터뷰

임용현 상임활동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135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한다. 이중 시각장애인 수는 24만 6182명(등록 장애인의 9.4%)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국가통계가 뒷받침하듯 아픈 몸, 손상된 몸은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뿐, 개개인의 취약성은 사고나 질병, 혹은 노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발현된다. 노동자 건강권이 비장애, 남성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사회라면, 아픈 몸, 손상된 몸을 지닌 이가 사회와 일터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돌봄노동자이자 장애인노동자인 박제민 씨를 만나 그가 하는 일과 일터에 얽인 여러 고민들을 들어보았다.

### 안마 일 빼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안마라는 일에 대한 세상의 흔한 생각은 이렇다. 누군가의 지친 육신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며, 보통은 시각장애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국내에서 안마 일은 사업 주체와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제민 씨는 말했다.

“안마는 휴식을 위한 서비스도 있지만,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근골격계나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안마 바우치’ 사업도 있거든요. 전자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이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오는 것이고, 후자는 노인 질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민 씨의 경우 이 두 가지 일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안마센터에서 병행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는 어떻게 안마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시력이 좀 안 좋았  
거든요. 2~30대까진 내가 남들보다 시력이  
나쁜 편이라고만 여겼지, 이걸 장애라고 스  
스로 받아들이기까진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서) 글자 크  
기를 확대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  
빠지니까 그제야 ‘내가 이전처럼 살 순 없겠  
구나’ 깨달았죠.”

이전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순 없으리  
라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다. 시각정보에  
주로 의존했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버려야  
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온몸’으로 익혀나  
갔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지팡이 짚는 법부  
터 배웠어요. 한 3개월쯤 재활 훈련을 받고  
나니 이제 정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  
을 되찾았죠. 그래도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  
하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죠. 이 나라에서 장  
애인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란 거의 ‘하늘  
의 별 따기’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각장애인은 맹학교  
를 졸업하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길로 제민 씨는 국  
립서울맹학교에 입학했고 어느 시각장애인  
들처럼 안마사 자격증을 땀다.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적 경  
로는 험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안마사 말고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다  
른 일자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사회복  
지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도 있  
고, 점자책을 만드는 점역교정사라는 직업도  
있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나 점역교정사는  
해당 기관에서 이분들을 채용할 예산과 정  
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대단히 한정적인 상  
황이죠. 그 외에도 교사나 공무원이 되는 길  
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의무고용 비율도 적  
은 편이고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잖아요. 결  
국 저처럼 나이 마흔 되고 나서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안마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인들한테는 참 미  
안한 말이에요. 다른 유형의 장애는 유보 직  
종(특정 장애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 직종  
을 할당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이 없거  
든요. 안마, 마사지, 지압은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서 명  
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마사는 일정한 수  
련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채용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가까스로 취업  
문턱을 넘은 극소수의 장애인들은 직장 안  
에서도 다양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다. 시  
각장애인 안마사를 법률상 유보직종으로 보  
장하는 까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안  
마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먹고 살 만  
한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기계가 아닌 사람”, 안마사도 골병든다

시력을 잃기 전 제민 씨는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지역운동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열사정신계승사업을 일평생 자신의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온 활동가 박제민이 타인의 몸을 돌보는 안마 일을 생업으로 삼게 될 줄은 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보통은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일 말고는 다른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답답한 면도 있죠. 안마 일이 좀 더 괜찮은 일자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게 부여잡고 있는 동아줄이 이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쥔 여유도 없이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든 일이 바로 안마였다. 적성에 맞느니, 근로능력이 어떻니는 다음 문제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안마뿐이었으니. 시각장애인이라면 으레 걷는 길을 제민 씨도 곧장 따라 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이었노라 말할 순 없다. 일이 고되진 않은지 걱정반 궁금증 반으로 몰렸다.

“통상의 안마원은 50분 안마를 하고 10분 휴식을 합니다. 두 시간을 일하면 쉬는 시간도 두 배냐? 그렇진 않아요. 서비스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규칙적인 휴식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엔 일이 많을 땐 열 건씩 있는데요. 손님이 늦게 도착하면 그만큼 쉬는 시간이 날아가기도 하고, 쉬는 시간을 틈타 저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노동강도에 비해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비비는 등의 방법이나 지압을 사용해 안마 일을 한다. 상지 전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인 만큼 안마사도 얼마든지 골병에 시달릴 수 있다. 근육통 및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한 몸을 회복하려고 안마를 많이들 받으시지만, 제가 아는 한 안마사들 상당수가 골병을 달고 살아요. 그렇다고 안마사가 골병들면 ‘그럼 너네도 안마받아’가 해결책은 될 수 없잖아요. 노동시간이든 휴게시간이든 적정하게 보장해서 신체부담을 줄이는 게 맞는 방향 같은데, 보통은 숙련도를 높이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 시력의 부재가 권리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엄연한 노동자다. 그럼에도 이들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지 오래다. 몸을 다치거나 상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역량 나름이고, 그러니 요령껏 일하고 그때그때 알아서 쉬라는 말이 사업주에게서 서슴없이



▲ 2025.06.16.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남부노동상담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제민씨를 만났다. 사진 : 하셋별

나오기도 한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사장이나 직원이나 발급받는 라이선스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대한안마사협회’라는 사단법인에 전부 가입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가 동일한 단체 아래 묶여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택시, 버스 같은 운수 업종이 그렇듯 안마 일의 개별적·독립적인 노동방식은 각자가 처한 노동조건을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맹점이다. 더욱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권리를 깨닫고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제민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건 노인 빈곤 문제예요. 이 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연금 몇 푼 쥐어주면서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건강한 삶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발 딛고 있는 일터와 삶터부터 평등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